



봉우컬럼

습관이 될 때까지

목회 초, 나는 입에 재갈을 물고 다닌 적이 있다. 자주 말실수를 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입에 재갈을 물고 의식하면서 말하는 것에 주의했더니, 점차 실수가 줄었고, 어느새 나는 무의식적으로도 무슨 일든 선불리 답하지 않고, '기도해봅시다.' 하고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그 증거가 되는 일이 이것이다. 어느 성도가 나에게 소행 녹음기를 준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을 온종일 몸에 지니고 다녔다. 내가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하는지, 혹은 말에 실수는 하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 녹음기를 틀어보고, 나는 너무 놀랐다. 내가 한 말 중에 거짓이 없었고, 허튼 약속도 없었고, 남을 저주하는 말도 없었고, 부정적인 말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한 것이 무의식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나는 나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했다.

그렇다. 낯은 습관,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안 되면 나처럼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김유신이 그랬다. 그는 젊은 시절 기생 천관녀에 빠져 하루가 멀다고 천관녀의 집에 드나들며 향락을 즐겼다. 그의 어머니는 그런 자식이 걱정되었고, 부디 대업을 이루는 아들이 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 어느 날, 어머니를 여읜 애절한 마음과 한심했던 자신의 과거를 책하며 생각 없이 애마(愛馬)를 몰았는데, 말이 습관대로 천관녀 집에 가서 멈추는 것 아닌가.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애마의 목을 치고 입산수도했다. 그 결과 훗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신라의 명장이 되었다.

습관이 왜 중요할까? 습관이 운명을 바꾸기 때문이다. 습관은 우리에게 말한다. "나는 너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시킬 수도 있다. 나는 너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9장에 '손이, 발이 자주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다.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만드는 너의 자작품이다.

제26회 대학청년부 수련회

"26년 예수중심교단 수련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수련생이 모인 강력한 수련회였습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열린 제26회 전국 대학청년 연합수련회를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였다. 기도원 내 숙소는 모두 수련생으로 가득 찼고, 인근 모텔까지 모두 점령한 적은 처음이었다. 하루 수천 잔 커피와 에이드를 뽑아낸 카페 봉사팀과 매시간 2천여 인분의 식사를 제공한 식당 봉사팀은 온종일 분주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역대급 수련생들의 식사와 간식을 위

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의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야성을 잃은 독수리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사느냐가 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었던 꿈을 되찾고 잃었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귀를 진멸하고 하

이 명품이다'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목사님은 본인이 신었던 신발을 직접 벗으시며 나에게 명품이란 비싼 것이 아닌 내 발에 편안하고 잘 맞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 나에게 맞는 음식, 나에게 맞는 여자나 남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부러워하다가 자신의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 달란트를 찾아 인생의 명작을 만드십시오."



제26회 대학청년부 수련회(2024년 8월 1일~3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해 전국에서 투입된 목회자와 봉사자들은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산인해로 모여들자 교단의 얼굴에 밝은 빛을 내며 그들을 정성껏 보살피셨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든 수련회에는 '배가 부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련회를 만들어보자는 모두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첫날 저녁 집회,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청년들의 모습에 '나는 이번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미래를 보았다.'고 운을 띄우며 설교를 시작하셨다.

"독수리의 자녀는 독수리요, 호랑이의 자녀는 호랑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

나님이 예비하신 땅과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실까 걱정합니까? 모세, 엘리야, 다윗, 베드로, 빌립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과연 누가 이런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이는 권세와 능력을 겸비한 분이 아니고는 절대 입을 뿔 수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 누군가 이 말씀을 받아 레마로 삼는다면 분명 제2의 이초석 목사가 배출될 것을 믿는다.

둘째 날 저녁집회는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 대성전 수련생들이 뒤에 서서 강의를 듣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이에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더욱더 값진 강의로 부응해주셨다. '명품이란 나에게 맞는 것

시오.' 목사님은 늘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샘플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지고 쉽다. 샘플을 보고, 답을 보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번 제26회 전국 대학청년 연합수련회를 통해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미래세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었고,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미래는 뜨거운 태양만큼 빛났다.

이번 수련회에 물질로, 봉사로, 기도로 도와주신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송현혜 생도

charisma0691@hanmail.net

2024
하계산상집회

8월 12일(월)~15일(목), 8월 19일(월)~22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1:25~28)

야성을 잃은 독수리가 되지 말라

어느 소년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 위 동지에서 알 몇 개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침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니 거기에 가져온 알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암탉이 잠시 자리를 뜰 때 가져온 알을 동지에 넣었습니다. 암탉은 자기가 낳은 알과 소년이 가져온 알을 정성껏 품었고, 때가 되매 하나둘 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아리가 뻘뻘악악하며 나오는데, 놀랍게도 조금 큰 알에서는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소년이 가져온 알은 독수리 알이었던 것입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
누구에게 배웠는가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와 같이 어미 닭을 쫓으며 구구거리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울타리 위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닭은 다급히 '다들 피해!'라고 소리쳤지만, 결국 닭 한 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닭 속에서 살던 독수리들도 도망을 쳤는데, 그중 하나가 흘끗 보니까 닭을 채간 놈이 자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형제에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형제 닭을 채간 그놈 말이야. 우리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우리는 늘 다른 형제랑 좀 다르게 생겨서 주어진 자식인가 갈등했잖아. 혹시 우리는 독수리가 아닐까?" 그러자 다른 독수리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닭이야. 그놈들이 나타나면 얼른 도망가야 한다고 엄마가 그러셨어." 다음날 또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도망치기 바빴지만, 어제 독수리를 보고 자각하기 시작한 녀석은 꼼짝하지 않고 독수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랑 똑같은데...'. 다음날도 또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닭을 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닭 속의 독수리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너는 나와 같은 독수리인데, 왜 닭 속에서 사는 거니?", "내가 독수리라고?", "그래, 넌 닭이 아니야. 하늘을 나는 독수리야." 이 대화를 엿들은 어미 닭은 "너 미쳤니? 넌 닭이야. 내가 낳았어. 빨리 숨기 나 해!"라고 했지만, 닭 속의 독수리는 자신의 신분이 확실해지자 엄마의 만류를 뿌리치고 날개를 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아닙니까. "와~ 나는 닭이 아니었어. 독수리였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낳으셨습니다(요1:12~13).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자식이야. 너 자신을 알라."고 누차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급기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듯,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행한 것을 보라.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하시며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 닭을 채가는 것을 보여주듯 말입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에게 배워야 독수리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새 중에 왕인 독수리도 닭에게 배우면 닭처럼 사는 겁니다. 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배워야
하
나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님
자녀
답게 사
는데, 사람
에게 배우니 하
나님 자녀의 본성을 잃

어버리고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이 가르쳐야 하건만, 교회가, 주의 종이 세상의 지식과 문화나 가르치고 있으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자고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벼랑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제가 해외집회에 나가면 세미나를 겸하는데, 그때면 이런 질문을 자주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개새끼는 개요, 소 새끼는 소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백이면 백 모두가 얼버무리거나 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다'라고 답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차마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안 배웠거든요. 백락상으로는 답을 아는데, 그렇게

배우지를 않아서 입을 못 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맞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넘기셨지 않습니까(마28:18)? 모든 권세를 이양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에게 당신의
권세를 이양
하
셨
고
요 (눅

22:29).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란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본이 침략하여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뭘까?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민족'임을 잃어버려야 독립할 생각하지 않고, 일본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란 놈이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면 그에 맞는 권세를 찾게 되고, 그러면 그 권세 앞에 쫓겨나가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회 초에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세계 최대의 수족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어와 작은 물고기들이 한 공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본시 상어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법인데, 어떻게 이런 일

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아해하자 담당자가 그 이치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큰 수족관에 상어와 물고기를 넣어놓으면 당연히 상어가 그것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어와 물고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쳐놓는답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어가 어느 때처럼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면 유리벽에 부딪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상어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 하면 다치는구나. 절대 잡지 말아야지.'하고 각인된답니다. 그래서 유리벽을 제거해도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고 조련사가 주는 먹이만 먹는다고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조련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쳐놓고 상어를 조련하듯 하며, '이건 안 돼. 그냥 살아야지.' 합니다. 본성과 야성을 잃어, 그저 팔자려니, 운명이려나 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치우시고는 '뭇된 지배하고 정복하고 누려라' 하십니다. 물고기가 당연히 상어의 밥이듯,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자녀를 위해 예비된 것이니 당연히 누리고 정복하라 하십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요 15:5).'라고 하셨습니다. 팔이 나이듯, 포도나무가지도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 자체이듯, 우리가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예수와는 무관한 그저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팔자타령 그만하고
네 신분을 알라

신분을 알았다면 권세도 찾으셔야죠. 세상의 왕자와 공주들의 권세도 어마어마한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어떻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며 구하면 됩니다. 내 신분을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번 수련회는 배가 부흥이다! 이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할 거면 하는 의미가 없다!’ 수련회를 앞두고 진행된 리더 교육에서 이시대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연합회장단 회장의 직분으로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도 잠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셨고 반드시 성취하실 분임을 알았기에 기쁨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집중을 흐트리려는 여러 환경적 변수들이 있었고, 회의를 할수록 챙겨야 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막막함과 수련회 얘기만 꺼

내면 연락이 끊어지는 친구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못하면 어쩌하지, 주저앉게 만드는 생각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릴레이 금식과 작정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었고,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으시고 조각구름처럼 매일 한 명, 두 명씩 늘어나는 확정 인원들로 저희 모두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목표는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담임목사님과 모든 청년이 매일같이 외치며 준비한 이번 수련회는 정말 역대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기도보다 더욱,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기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

은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가 기도원에서 편히 거할 수 있도록 너무나 아낌없이 가꾸셨고, 수련회에서 한 번의 설교를 위해 7시간이 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조부모와 부모를 길러내고 키워오신 목사님은 이제 제3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성공시키고 옳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 정말 당신 자신과 사투를 벌이신 것입니다. 또한 ‘야성을 잃은 독수리가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라!’ 주옥같은 말씀들을 심어 주시는 목사님의 놀라운 열정과 사랑에 그곳에 모인 천여 명의 청년들은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되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

지하며 넉넉히 이겨낸 이번 수련회를 발판 삼아 우리는 또 한 번 질적인 부흥을 위해 달려가려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온 많은 새 가족과 잃었던 영혼들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오래 간직하고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 마음을 들여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매시간 모든 힘을 쏟으시며 바른 가르침을 주신 총회장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악해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중심교회를 통해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회장단 신효진 회장

“하나님, 저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요?”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내 안에 예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텃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종교인이었다. 그러니 교회 일에 적극적일 수 없었다. 그러던 2년 전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자 담임목사님이 수련회에 참석할 것을 권면하셨다. 나는 여러 상황상 불참을 결정한 상태였으나 목사님의 강권에 밀려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개회 예배부터 은혜가 넘쳤고, 새롭

게 시작하고자 물세례와 성령세례도 다시 받았다. 무엇보다 큰 기적은 수련회 후 내가 매일 눈만 뜨면 교회로 가는 뜨거운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수련회 전의 나’와 ‘수련회 후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시대 목사님이 설교 중에 ‘기도원에서 완전히 깨졌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때마다 나는 ‘저도요!’ 하고 속으로 외친다. 미지근했던 종교인이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었고, 등 떠밀려 했던 교회 일을 이제는 소맷자락 걷어붙이며 하는 적극적인 자

로 변화되었으니 수련회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셈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는 4개월 후 예수중심제자신학원의 생도가 되었고, 입학 1년 2개월 만에 전혀 예기치 못하게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강권으로 나를 끌어가시는 일에 대한 감회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요즘의 나를 보며 나 스스로 혼잣말을 한다 ‘하나님, 저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요...’ 여섯 남자를 갈아치운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을 것이다. 남의 눈을 피해 우물을 길

러 다니던 여인이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으니, 그녀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 않았을까.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과거의 나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요...” 경기교회 김혜리 교육전도사

입을 넓게 여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약 2:17). 이 말씀은 처음 알아보는 청년부 조장으로서 제가 가진 마음자세였습니다. ‘배가 부흥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에 있다’라고 생각한 저는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모든 친구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10년 이상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근황을 물어보고 수련회에 초청했습니다. 3주간 작정기도로 무장하고 점심시간에 회사에 찾아가 점심을 사주며 전도하고, 한강 물이 범람하는 폭우에도 수련회 배가 부흥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비바람을 뚫고 전도했

습니다. 또한 매주 있는 돈, 없는 돈을 털어가며 전도용품들을 만들어 수요일과 주일, 성도들과 각 교구의 전도사님들께 전달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오기 위해 청년 모두가 협력하여 달렸습니다(롬8:28). 그 결과 이번 수련회는 역대 가장 많은 수련생이 참가한 수련회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련회 사상 최대의 인원,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배가 부흥하자고 입을 두 배로 벌리니 정말 두 배가 채워지는구나. 그렇다면 입을 세 배로 벌리면 세 배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말

씀대로 우리가 안 해서 못하는 것이고, 안 벌려서 못 받고, 작게 벌려서 적게 받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경업아, 키가 작아도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그러니 큰 생각, 큰 뜻을 품어라. 분명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은 했지만, 조금 버거웠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은 선택된 누군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에게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거

든요. 입 벌리는 대로 이뤄지고, 입 벌리는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큰 꿈을 꾸렵니다. 입이 찢어지도록 크게 벌리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보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인물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남들이 헛된 꿈이라고, 망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는 말씀이 제게 레마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경업 생도



:: 일본에서 온 편지 ::

:: 신앙에세이 ::

약점이 변하여 강점으로

양동이를 거꾸로 쏟아붓듯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한 울음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성전으로 내려왔더니, 한 젊은 형제님이 평평 울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키가 너무 작아 매사 자신이 없어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중요한 일을 그르친 채 창피를 당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삭개오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기도해주었더니 그는 마음에 평안을 찾고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믿음 안에 계시면서도 자신들의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듯합니다. 그 단점을 단점으로 끝내지 말고 강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뿔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눅19:3~4).

삭개오는 유대인에게 매국노로 취급받는 세리라는 직업과 키가 매우 작은 신체적 약점으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그는 뿔나무로 올라갔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무능력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어장치, 은혜의 장치입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고 오히려 자량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십니다(엡3:1~9).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도, 최후에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정을 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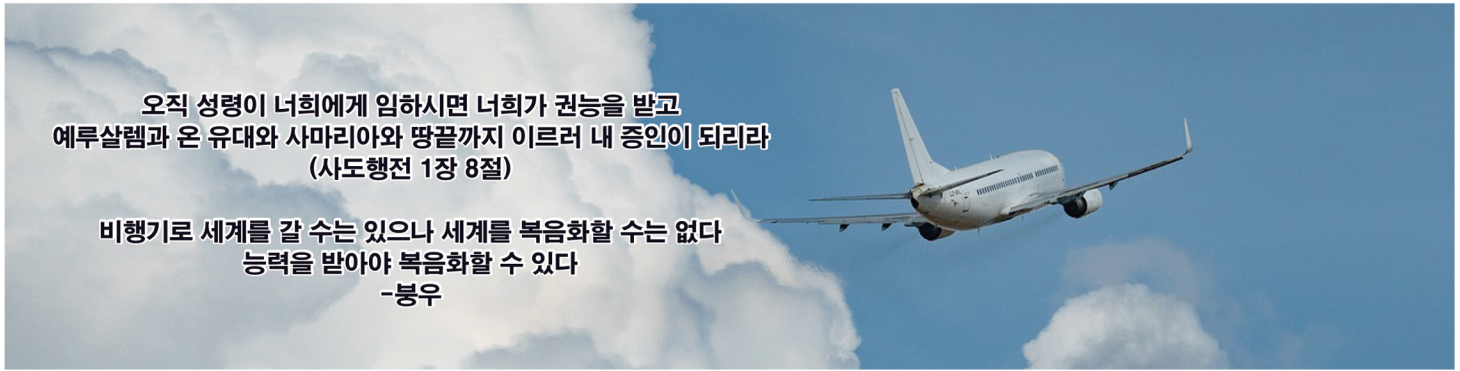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신만의 길을 주셨습니다. 멋져 보이는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시다. 내게 주신 길과 은혜가 소중합니다. 한평생 다윗을 시기하며 헛된 인생을 보내다 비참하게 간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삭개오처럼.

우산으로 막을 수 없는 비가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절망과 깊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삶에 아픔의 구멍이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못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일어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 주님을 향한 노래 ::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6:24).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기쁨은 누려본 자만이 그 맛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까지 응답이 안 올 리가 없는데...’ 하며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며(벧후3:8),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사 55:8).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느새 지나고 종교행사도 인원 제한이 풀려서 처음으로 총동원을 했던 주일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교단 전체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예배에 힘을 모았습니다. 저도 많은 교구

에서 목표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독려하며 금식하고, 철야기도도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주일날 아침 교구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분, 한 분이 타실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목표했던 인원이 다 타지 못한 채로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정욕대로 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제까지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하니 낙심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교회에 이미 와있었습니다. 저는 세웠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 기도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흘러 도저히 찬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을 부르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는 이미 내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저를 위로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시던 한 가정이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족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는 죽을병에 걸리게 되고,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요11:21).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무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는 예수님의 크신 뜻을 마르다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마르다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마르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도 때때로 마르다처럼 주님을 향해 원망 섞인 투정을 부릴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요11:22).

이호민 전도사
fioe154@naver.com

틀

요즘 사춘기에 접어든 첫째 아이와 서로 부딪치는 일이 잦아졌다. 최근에는 머리 깎기를 싫어하여 미용실에 간 지 3개월이 넘어서게 되었다. 머털도사 수준으로 더는 아니다 싶어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모두 깔끔하게 깎아달라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인상을 쓰며 앞머리는 깎지 않는다 거부하였고, 미용사를 사이에 두고 나와 실랑이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순간 열불이 나서 마음속으로, ‘저거 미용실 나가자마자 머리통을 세계 한 대 때려줄까.’,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 오온영 박사님 훈육 방식이고 뭐고, 그냥 한번 무섭게 잡아버려?’ 생각하며 그 상황을 상상했다. 그런데 문득, 매섭게 혼내고 난 후 누군가 내게 “아이를 왜 그렇게 혼내고 때렸어요?”라고 물으면 나는 무엇이래 말하지? “내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대로 하지 않아서요.”라고 답변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슨 이유로 화가 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니, ‘내가 혹시 아이가 주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아이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내 틀에만 맞추기를 바라는데, 거부하니 화가 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어쩌면 사랑하는 이들과의 갈등은 자기의 틀만을 고집해서인 것은 아닐까? 심지어 교회도 내 틀에 맞추려 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마저도 내 틀에 맞춰달라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이 깊어졌다.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마음속 여유를 바라는데, 왜 고집은 세어지고, 감정은 더 예민해지는 건지. 깔끔해진 머리로 미용실을 나서는 아이를 보며 한결 마음이 나아졌다.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아까는 머리통을 왜 때려주고 싶었을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51:10).

박찬영 집사
cross35@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